

경제포커스

■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

최경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

김상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

최경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gchoi@sdi.re.kr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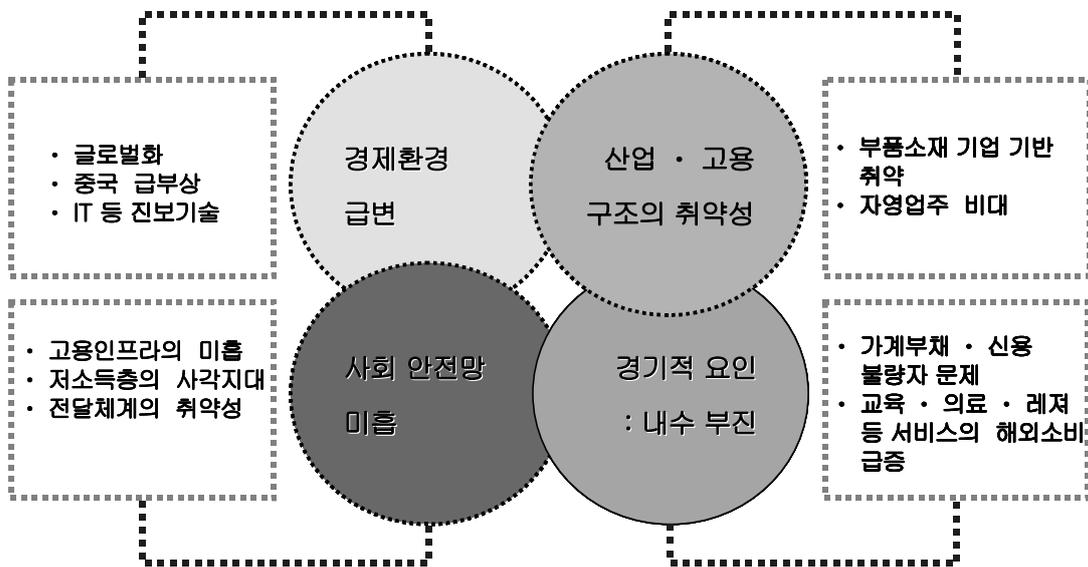
- 최근의 경제 양극화는 경제 구조의 성숙화,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구조조정, 성장 지속 등의 대내적 요인과 세계화에 따르는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기술 혁신 등의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취약해진 경제구조에 지속적인 내수부진이 겹쳐 양극화 현상이 여러 부문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음
 - 내수부진의 지속은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훼손
- 양극화는 ‘산업·기업간 격차’ → ‘고용·소득 격차 → ‘혁신기반(교육·인적자원 투자 기회) 격차’ 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 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
 - 산업간 및 기업간 실적의 양극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제약이 큰 낙후산업 또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설비투자가 위축
 -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도 부문간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Stanford University 경영학 박사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팀장 역임
- 중소기업의 ERP 도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연구, 2005) 등

- 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주력산업의 대기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낮은 생산성, 업종별·업체간 양극화의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재무구조, 수익성 등에서 격차 확대되고,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제도개혁의 결과로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구조가 영미형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연구개발 자금조달에서 내부자금을 의존하게 되면서 연구개발 투자에서 금융제약현상이 심화됨

■ 경제환경 변화 + 산업 · 고용구조의 취약성 + 사회안전망 미흡



<그림 1> 경제 양극화의 원인

2. 대·중소기업 생산성 양극화 현황

- 산업구조 성숙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중소기업 부문이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충격에 직면하게 되어 대기업 및 호황 부문과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됨
 - 성장주도 산업인 IT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치사슬이 약화되어 생산유발효과 감소
 - 예를 들면, 한국의 전기·전자산업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1990년의 1.93이 2000년도에 1.71로 감소됨(일본의 경우 1990년의 2.26에서 2000년도에 2.26으로 유지)

- 생산성 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낮을 뿐 만 아니라 향상 속도도 더딘 추세로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영세소기업의 급증, 설비투자 부진,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른 낮은 기술 수준에 주로 기인함
 - IT기술 발달, 벤처기업 육성 등에 힘입어 종업원 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 창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1%에서 2003년 76%로 확대
 - 영세 사업체(20인 미만)의 제조업 중, 고용 비중이 1980년대 후반까지 1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7.3%로 증가 하였으며,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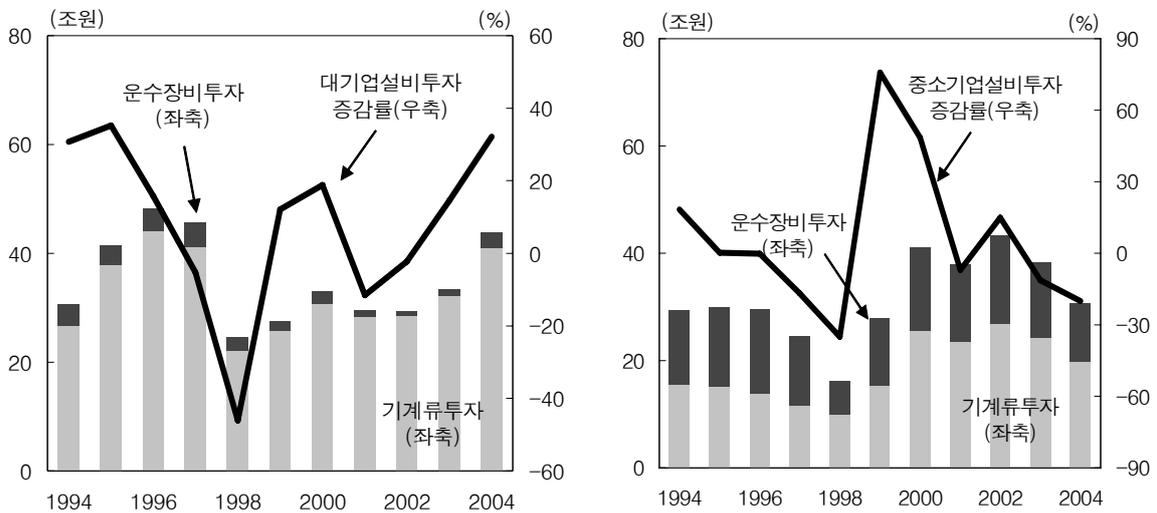
〈표 1〉 종사자규모별 중소기업 비중

(단위: %)

종업원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1980	1990	2003	1980	1990	2003	1980	1990	2003
중소제조업 (300인 미만)	96.6	98.3	99.4	49.6	61.7	76.9	35.2	44.3	52.8
5~19인	58.0	60.6	75.9	8.2	14.0	27.3	4.0	7.0	12.8
20~49인	21.0	24.8	16.4	10.1	17.4	20.3	5.7	10.6	12.2
50~99인	9.5	8.1	4.7	10.3	12.6	13.3	7.3	9.6	10.2
100~299인	8.1	4.7	2.4	21.0	17.7	16.1	18.2	17.1	17.5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각호

- 1980~2003년간 대기업의 실질 자본스톡 증가율은 연평균 10.4%이었으나 중기업 7.9%, 소기업 7.3%, 영세기업 5.4%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본스톡의 증가가 낮아 자본집약도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대기업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대기업 설비투자가 2001년 이후 증가하고 2003년 이후 2년 연속 30%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2002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내수부진과 중국기업의 급부상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이 국내투자는 줄이고 해외투자에 주력하는데 기인



자료: 산업은행 「설비투자 계획조사」 각호

〈그림 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 19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부터는 대기업의 증가율이 높아졌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 1.7%에서 2005년 13.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3%에서 0.7%로 크게 개선되지 못함

〈표 2〉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1~3/4
대기업	1.7	19.5	10.7	15.6	13.4
중소기업	-2.3	7.7	2.7	4.9	0.7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2005년 1~3/4분기는 기간 중 평균임
 자료: 산업자원부

- 대·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양극화는 2005년 제조업 기준 대기업 생산증가율은 10.7%인 반면, 중소기업 생산증가율은 -0.6%에서 나타남
- 부가가치율에서 대기업의 경우는 상승(1980년 20.1% → 2003년 22.0%)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980년의 23.9%에서 2003년의 20.3%로 하락

〈표 3〉 대·중소기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대기업	12.3	0.0	22.5	6.5	14.6	10.7
중소기업	2.5	-18.4	4.4	2.7	5.1	-0.6

주: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 외환위기 직후 기간인 1998~2001년의 경우 벤처기업 붐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 수익성의 격차가 크게 확대됨

〈표 4〉 제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익성 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영업이익율	대기업	6.53	7.38	8.21	6.03	7.54	8.16	9.43
	중소기업	6.01	5.66	5.44	4.86	5.01	4.56	4.47
경상이익율	대기업	-2.91	1.01	0.26	-0.58	5.42	5.96	10.23
	중소기업	0.90	3.27	2.92	2.72	3.38	3.17	3.42

주: 매출액 대비 이익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연구 DB

3. 대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양극화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인력 부족률 격차가 1999년 0.7%p에서 2003년 1.2%p로 확대됨
 - 관리전문기술인력 부족률은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 1999년 0.8%에서 2003년에 1.4%로 크게 확대
 -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기업의 경우 0.1%에서 0.2%로 소폭 증가에 그침

〈표 5〉 대중소기업 관리전문기술직 부족률 추이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대규모(300인 이상)	0.1	0.3	0.2	0.5	0.2
중소규모(300인 미만)	0.8	0.9	1.1	1.7	1.4
차이	0.7	0.6	0.9	1.2	1.2

주: 부족률(%) = (부족인원/현재인원) × 100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연구 DB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진으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총투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특히,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사이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 규모의 격차 문제가 심각해짐

〈표 6〉 기업 규모별 총투자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계획)
대기업	5.5	4.5	4.3
중소기업	3.3	3.5	3.2

주: 한국산업은행

- 우량 대기업은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R&D 투자 등을 통해 자체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R&D 인력부족, 신용제약 등의 요인으로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 기술 인력과 R&D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짐.
 - 특히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소요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소요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 투자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더욱 뒤처지게 됨
- R&D 투자와 혁신활동(제품, 공정 및 조직혁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R&D를 수행하는 비율이나 혁신성과를 내는 비율이 비례적으로 높게 나옴
- 약 40%의 기업이 R&D를 수행하고 혁신성과도 내고 있으며, 3%만이 R&D 없이 혁신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R&D를 수행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기업의 약 13%로 나타남
 - R&D 활동도 없고 혁신성과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소기업은 68%, 중기업은 32%를 차지하는 반면 대기업은 11%에 불과함
- 대체로 대기업은 R&D에 필요한 자금의 80% 이상을 내부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60%~75%에서 이루어짐
- 연도별로 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내부자금 조달비중은 최대 30%p(1995년)에서 최하 16%p(2001년) 만큼 차이가 남
 -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R&D 자금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상당수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부실한 상황에서 그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전담해 오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도 축소될 계획임에 따라 이들 기업의 경영 및 R&D 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신용보증기금은 2010년까지 매년 1조원씩 보증잔액을 축소할 계획임

〈표 7〉 기업의 R&D 자금조달 형태

		1995	1997	1999	2001
대기업	내부조달	89.9	89.3	94.3	81.2
	은행자금	4.5	3.8	1.3	6.9
	창업투자	0.0	0.1	0.0	0.0
	정부출연금	2.0	1.9	1.5	6.2
	기타 외부조달	2.7	4.5	2.7	5.7
	재정자금	0.8	0.4	0.1	0.0
중소기업	내부조달	59.9	64.8	74.5	65.2
	은행자금	16.3	10.0	8.2	12.2
	창업투자	0.6	2.7	2.6	3.8
	정부출연금	12.7	12.1	8.7	8.5
	기타 외부조달	4.7	4.9	4.7	9.0
	재정자금	5.7	5.5	1.3	1.3

4. 양극화 완화방안

선도산업·기업의 지속적 혁신 유도

- 선도산업 및 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학·연간 R&D 협조 및 조정체계를 구축강화가 필요함
 - 현재의 대기업중심 산업클러스터를 중장기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개편함
 - 중소기업 스스로 공동기술개발, 정보공유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비생산직 종업원의 구성비, (기업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의 연구개발, 자본장비율, 산업의 해외투자,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높을수록 혁신기업육성의 토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안상훈, 2005)

- 개별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술직 및 자본장비율 등이 고성장의 주요요인이 되지만 그 중소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연구개발, 수출, 해외생산 등이 고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간 분업화 및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시사함

한계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혁신역량의 악화 등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혁신역량 제고 등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긴요함
 -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이고 기업이나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집중함
 - 한계기업은 해외이전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하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 및 퇴출 등으로 발생하는 실직자의 전직을 위한 재취업교육 필요함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 유망 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직접금융시장 및 기술개발관련 자금 지원을 활성화와 R&D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R&D 프로젝트 금융 및 기술유동화증권 등의 추진함
 - 산업자원부가 2006년 상반기에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메자닌 파이낸싱 (Mezzanine Financing)을 활용한 P-CBO 발행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등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요함
- 산업전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그 외부효과가 높으며, 이는 개별업체의 연구개발 활동이 그 업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는 개별업체의 혁신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큼을 시사함
 - 업체별 자본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함

- 중소기업들의 미래수익모델의 발굴을 위해 대기업위주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이 범국가적인 R&D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 중소기업 스스로도 공동기술개발, 정보공유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중소기업 기술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형 산학연 협력강화 등도 적극 추진함
- 중소기업들의 미래수익모델의 발굴을 위해 대기업위주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중소기업 스스로도 틈새시장 공략, 고유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산업으로 특화 노력함
 -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에 맞추어 무조건 관련업종에 진출하기보다는 재래산업 내의 고부가가치 업종을 발굴함
-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
 - 현재 중소기업 포괄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300명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동 기준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규모 등이 중소기업 대상범위를 넘어설 경우 분사 또는 계열사 설립 등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11.18일 매일경제)

인적자본의 육성

-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함
 -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함
-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함

공정경쟁체제 확립

- 산업간 및 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공정경쟁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기업집단내의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으로 시장규율을 강화함
- 선도기업들 간에 “아슬아슬한 경쟁” (neck-and-neck competi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상유지보다는 기술혁신에 과감히 나서도록 하며 연구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하도록 유도함
 - 또한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이 고착화되지 않고 이동성(mo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진입장벽들을 제거함

참고문헌

- 김동석, “제조업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 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김주훈 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KDI, 2005
- 산업자원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2006
- 서중해, “중소기업의 R&D 투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주훈 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KDI, 2005

- 신태영 외, 「200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STEPI, 2002
- 안상훈, “중소기업의 진입과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 김주훈 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KDI, 2005
-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 조용수·송태정·이서원, 「경제양극화 정책의 Best Practice」, LG경제연구원, 2005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금융시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05
- 한국은행,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 한국은행, 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2005